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농진청,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안전재해 예방 전문 상담 펼치도록

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

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방법 안내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주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대상자(가입자 포함)로서 5인 내외의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농작업 종사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 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안전재해율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매

년 5만 4,000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를 입은 셈이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보건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특성에 맞춰 전문 상담(컨설팅)을 함으로써 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현행 농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은 지난 10일 원광대학교병원 일원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경진원 윤여봉 원장,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병원장)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맞손'

경진원, 원광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진원은 지난 10일 원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및 공간 등 인프라 협력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 및 개방형 실험실 사업 유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2년 동안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하천정비 사업 동절기 현장 실태 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10일 민경강 고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부터 실시한 민경강 고산지구는 민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을 확충하고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송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산지구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민전을 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스마트 제조로 생산성 높이고 인력난 해결

전북자치도, 2025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농업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영세 농식품기업의 인력난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창원 식품기업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은 기존의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대신 중요한 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지원을 포함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과의 협력 컨설팅도 병행하여 참여 기업의 식품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시군을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뒤 현장 확

인과 심사를 거쳐 2월 중 선정 결과를 각 시군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공모 안내문은 전북자치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063-280-3261) 또는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가 도내 농식품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O만호 기자

전북은행, '2025년 잘되길 바라요! 특판적금 출시·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적금을 제공하는 '2025년 잘되길 바라요! 특판적금 출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이번 특판 적금은 12개월에 최고 연 3.60%(기본 3.20%)금리가 제공되며 총 판매한도 1만좌로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계좌당 월 10만 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적금은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계약기간 1/2 이상 납입 시 연 0.20%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2% 등 최고 연 0.40%가 제공된다.

동일 기간에 진행되는 출시 이벤트는 특판적금 가입 시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월 10만원 이상 신청한 고객에게 월 불입액 10만원 단위로 추첨권을 최대 10매까지 부여하며, 이후 총 300명을 추첨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 새해를 맞아 전북은행 고객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특판 적금을 출시했다"라고 전했다.

/O만호 기자

2025년 기업지원 사업 설명

새만금청, 1월 한달간 입주기업 1:1 방문 애로사항 청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월 한달간 직접 입주기업을 1:1로 방문해 2025년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새만금청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해 2025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기업의 채용홍보 지원사업, 애로사항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새만금청은 2025년 주요 기업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과 임대주택 지원, 전문가 자문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총 7대 통근버스가 군산 주요지역 및 익산, 전주까지 운행되며, 올해는 1월 2일부터 끊임없이 운행이 시작되었다. 새만금청은 올해도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 최적화

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확보도 작년보다 추진됐다. IH와 적극 협업체에 2024년 79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여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주거복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전문가 자문지원은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노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문이 지원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새만금청이 인근 교육기관에 홍보하는 등 기업의 고용활동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1:1 기업 방문간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며, 청취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피드백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O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